군포교 진흥 위한 군승 야단법석 '눈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제1회 군승 설법대회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나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을 가득 메운 군포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동료 군승법사의 설법을 경청하는 군승법사들부터 부대에서 단체로 설법을 듣기 위해 나온 백마부대 군장병들과 부대 신도들까지 사상 처음으로 열린 육해공군 설법대회에 쏟아진 관심은 뜨거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1회 육해공군 설법대회를 개최했다.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군종특별교구장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자광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등 스님들과 육해공군 군승법사 80여명, 각 부대 신도와 군장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법대회에 참가한 한 군승법사가 삼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법대회 시작은 부교구장 남전 스님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남전 스님은 "모든 조직은 사람과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군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군승"이라고 분위기를 달궜다.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도 "1968년 군승 1기 5명의 탄생을 계기로 군불교 역사는 시작됐다. 이번 대회는 군승 파송 50주년의 의미를 특별히 새기며 군승의 자질과 포교열정, 설법 역량을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며 "경연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설법의 대향연이라 달리 부르고 싶다. 환희심을 통해 자성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은 높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보배를 가득 채워 모든 여래에게 보시하여도 하나의 법보시보다 못하니 법보시의 공덕은 한량없다고 하셨다. 출가사문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오늘 함께 한 군승 여러분 모두 군포교와 향후 종단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대중을 일깨우는 사자후를 토해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설법대회에는 석림 박민구, 수종 박영호, 상월 박태환, 지명 손상민, 정행 정준영, 순철 서정대, 무진 이상욱, 균재 강혜림, 법현 김민균, 지현 박재윤, 여거 이원우 군승법사의 재치 넘치는 설법을 선보였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설법도 젊은 군승법사들이 PPT를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 영화 '신과함께'에서 나온 업경대 이야기가 설법 주제로 나오자 웃음이 터져나왔고, 각자의 부대 군승법사를 응원하기 위한 신도들의 함성도 커졌다.

군승법사들은 '마음의 장난 스트레스' '지금 이순간' '죽음, 그 새로운 시작' 등 불교 교리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주제로 설법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중간 쉬는 시간 마다 LMB싱어즈의 공연도 함께 펼쳐지는 등 문화마당으로 전개됐다.

대회서는 총무원장상에 균재 강혜림 군승법사, 포교원장상에 법현 김민균, 순철 서정대 군승법사, 교구장상에 여거 이원우, 수종 박영호 군승법사가 선정됐다.

이날 대회를 참관한 한 군승법사는 "동료 군승법사들의 설법을 통해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며 "부대에서 장병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설법이 되도록 설법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사찰서 한국 전통차 체험하세요"

봉은사 6월 20일 전통차 체험관 연회다원 개원

서울 봉은사는 6월 20일 연회루(구 종루)에서 전통차체험관인 '연회(緣會)다원' 개원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에 개원한 '연회다원'은 봉은사 창건주인 연회국사의 법호인 연회(緣會)를 딴 전통차체험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교문화와 차 문화의 우수성 알리고자 건립됐다.

그동안 봉은사에는 연간 수십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찰임에도 기도 · 수행 등 공간인 법당을 비롯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봉은사는 이에 '연회다원' 개원을 통해 100여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쉼터 또한 확보하게 됐다.

연회다원은 입식과 좌식 모두 가능하며 연차, 연근차, 올방개차, 대추차, 오미자차 등 10여 종의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또 차를 내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개원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인연과 모이는 뜻을 지닌 이 곳에서 차를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좋은 차를 준비하여 즐겁고 향기로운 연회다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봉은사는 같은 날인 6월 20일 법왕루와 부도전에서 영암당 임성대종사 열반 3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추모 다례재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과 신도 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02)3218-4812

노덕현 기자

조계종 화쟁도서 독후감 8월 31일까지 공모

초등부 · 중고등부 · 일반부 나눠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화쟁' 언급이 주목받는 가운데 조계종이 '2018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화쟁도서 독후감 대상 도서는 △초등부 〈아무도 지나가지 마!〉(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 〈고릴라에게서 평화를 배우다〉(김황) △중 · 고등부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하승우)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이상권) △대학 · 일반부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허영철) 등 5권이다.

공모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이메일(hwajaeng@buddhism.or.kr)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수상작은 11월 1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자비로, 신심으로 뭉친 불자골퍼들

직할교구신도회 제2회 자선골프대회 개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이금석)는 6월 20일 양평 TPC골프클럽에서 제2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44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36개조로 나뉘어 대회를 소화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 조계종 성역화 불사와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도 쾌척해 대회 취지를 드높였다.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은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불자 네트워크와 소외계층 돕기에 나설 수 있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⑩

송지환 울산대학교병원 봉사자

"부처님 응대하듯 환자 마주해"



백련이라는 법명을 쓰는 송지환(53) 씨는 10년간 호스피스 봉사를 해왔다. 현재는 울산대학교병원 93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송 씨는 2008년 여름 정토마을 능행 스님이 주최하는 아미타호스피스 27기 교육을 수료하고 1주일간 실습을 마치고 바로 봉사현장에 뛰어들었다.

"환자를 만나면 먼저 발마사지를 해드립니다. 금강경 '세족이부좌이좌(洗足已敷座而坐)'를 떠올리며 부처님 발을 씻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발을 만져보면서 굳은살과 상처, 발톱의 두께 등을 통해 그분의 삶의 여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대화의 어색함을 깨고 소통을 시작 할 수 있죠."

신체접촉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송 씨는 환자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반면 전문 병동이나 병실이 없는 곳은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 8세 여아, 21세 젊은 청년, 23세 신혼의 신랑이 호스피스에 왔을 때는 소통도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한다.

송 씨는 10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로 정토마을 자재병원서 만난 60대 여성환자를 꼽았다. 당시 환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기사식당을 운영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1시간동안 숨 가쁘게 들려주곤 1시간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사경을 헤매며 자신의 삶을 되짚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환자와 깊이 연결됨을 느꼈다고 한다. 송 씨는 이 환자와의 대화가 송 씨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경책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죽음을 삶처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송 씨는 향후 임종을 맞는데 도움이 될 법한 자료나 단행본을 만들어 보급하고 싶다는 포부다.

"삶에 집착하는 불교를 많이 하죠. 기복이라거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취직, 돈 등을 기원하기 위한 불교 말입니다. 이런 불교를 하면 중생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럴때 욕심, 슬픔, 분노,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에 초점을 둔 죽음을 준비하는 불교를 하면 이 모든것이 보잘 것 없어집니다. 이런 불교를 하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